

# 구례 단풍놀이 인파로 북적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성료

### 피아골 단풍길 · 연곡사 · 단풍공원 일원서 진행



구례군은 지난 주말 2-3일 지리산 피아골과 노고단, 화엄사 등 구례지역에 단풍놀이 인파로 북적인 가운데 제43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가 성황리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지리산 피아골 표고막터에서 구례군유도회에서 단풍제례를 봉행하는 것으로 시작 된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는 '산도 물도 그대로

소원리본달기, 연곡사 국화전시 및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좋은 평을 받았다.

주행사장인 단풍공원에서는 단풍노래자랑 예선과 본선,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음악회, 어울마당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끌어올렸다. 또, 은어잡기 체험과 농촌추수체험, 단풍밸리 등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향토음식 먹거리, 단풍손두부 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순호 군수는 "피아골은 단풍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찬한 곳이며 오랜 전통만큼 올해도 피아골단풍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신 것 같다"라며 "지리산 피아골과 노고단, 화엄사, 천은사 등 구례에 오시면 이달 중순까지 명품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여수시가 지난 1일 여수시청 상 황실에서 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수시장과 지문 단, 용역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중간보고, 참석자 의견 제시, 시장 마무리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사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수도권과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섬박람회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용역사에 따르면, 설문 내용은 여수 방문 매력도, 섬 관련 가치 인식 정도, 박람회 방문의사, 기대 프로그램 등 17개였고, 설문 방식은 온라인이었다.

설문 결과 1회 이상 여수를 방문한 응답자가 62.9%를 차지했고, 섬박람회 참여 여부에 대한 물음

에도 긍정이 부정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섬에 대한 기대 요소로 힐링, 휴양 등 정적인 활동을 꼽았고, 선박 체험과 같은 동적인 활동도 일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용역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여수=송기홍 기자

##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기대

### 안마도 · 송이도 중심 경제효과 기대 커 연인원 10만명 고용 등 경제 활성화

명운산업개발(주)이 추진중에 있는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송이도 인근해역의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사업(사업규모 354MW)'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최근 영광군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첫발을 떼는 사업으로 관심을 끌며 업계 관계자와 해당주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사업비 1조7천억원이 투입되며 약30개월의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3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세수

증대효과등 총4조2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건설기간동안 연인원10만명 고용, 생산 및 운영단계에서 상시인원 700명 창출과 관련 산업유발효과 까지 더하면 획기적인 일자리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서비스전진기지 구축으로 인한 지역 상생발전단지 건설, 기술인력양성, 지역 부품조달 공급업체(SUPPLY CHAIN)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미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중 가장 중요한 문화재 지표조

사, 국군전과영향조사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심의를 마쳤으며, 한전 계통기술협의를 완료 및 계통연계를 위한 토지 관리권을 모두 확보한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상풍력추진의 동력을 사전에 모두 확보한 등중중계 최초의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또한 인근 (5km내 섬인 송이도와 안마도) 주민대부분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점이 향후 사업추진에 매우 고무적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중요섬인 송이도 안마도 주민 대다수는 이미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상풍력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자들과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방향에 대해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전시 '꿈' 성료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8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영된 전시 '꿈'에 다녀온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회화, 섬유, 판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 미술과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꿈꾸는...'이라는 특별전으로 구성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역 아동과 함께 참여

한 이인성·성혜림 작가의 '꿈꾸는...' 전시가 끝나고, 담양군 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총감독 양초롱)은 참여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로 이인성·성혜림 작가와 전시 기획 의도에 적합한 어린이 작품 10여 점을 선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동문화예술촌에서는 '꿈'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민'의 세계, 전통에서 현대로'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해동문화예술촌 내 상상나래동, 아카이브관과 담양읍 등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진 데 있다.

이는 시작과 끝이 불규칙적이며 불편한 관람객의 동선이 작품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의 인내를 요구하도록 기획된 것으로, 문선영, 김지숙(민화), 스트리트 아티스트 정크하우스(한국), 스톱(텐마크), 강동호(회화), 박상화(미디어)가 참여한 해동문화예술촌의 안과 밖의 공간을 연결하는 첫 번째 기획전이다. 이외에도 아트 토크쇼 '톡톡'이 일상, 소외, 그리고 공동체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초롱 총감독은 "담양 마을에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될 '상황'들에 직면하게 하는 데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각자만의 특유한 불명확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과의 상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보성군, '제18회 벌교 꼬막축제' 성료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이자 꼬막의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읍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열린 '제18회 벌교꼬막축제'에 약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꼬막축제는 '벌교갯벌 레저밸리 대회', '소설 태백산맥 문학축제', 민족음악가 '채 동선 콩쿠르'와

동기간 개최하는 등 역대급 축제 콜라보로 벌교의 맛을 제대로 알렸다. 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가요계가 총출동해 보성군 가을 통합축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또한 성공적인 축제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이계 최고 주기를 달리고 있는 송기인을 비롯해, 남진, 현숙, 노라조, 설운도 등 쟁쟁한 라인업은 관광객의 발길을 벌교로 향하게 했다. 매일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도 이제는 빼질 수 없는 관람 포인트 자리잡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 문학축제에는 조정래 작가가 직접 참석해 애독자들과 함께 인문학 토크쇼를 갖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의 곳곳을 걸으며 문학기행을 진행했다. 특히, 보성군은 '조정래 작가와 소설 태백산맥'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발대식을 준비해 세계적인 문학기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세입장에서 근무자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